

목회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연구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A study through the historical reformed theology  
about the doctrine of perseverance of the saints

-The focus on The canons of Dort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2006년 12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 專攻

姜 日 柱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연구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A study through the historical reformed  
theology about the doctrine of perseverance of  
the saints

-The focus on The canons of Dort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지도 김 영 규 교수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 專攻

姜 日 柱

姜日柱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 은주 印 Eun Ju

審査委員 이 은선 印 Eun Seon

審査委員 장 화선 印 Chang

審査委員 김 영근 印 Kim Young-geun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년 12월

##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모든 상황과 여건을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 것도 모르며 모든 면에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귀한 배움의 터에서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을 쓰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논문을 쓸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언제나 부족하고 무지한 저에게 엄밀한 개혁주의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에 수고하시고 또 논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학문적이고 영적인 도움을 주신 김영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영적인 스승으로서 올바른 목회자의 길을 보여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따뜻한 말로써 격려해 주신 최복규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임석순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저를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기도로써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형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사역하는 가운데 항상 많은 도움과 배움을 주는 한국중앙교회 모든 교역자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함께 배우며 함께 삶을 나누었던 모든 동기 원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리고 부족한 저를 항상 친구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함께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옆에서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저의 예비 신부인 김미경 자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사역의 발걸음 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차 례

I. 서론 .....	1
A. 연구 목적 .....	1
B. 연구방법과 범위 .....	3
II. 도르트 회의 안에서의 성도의 견인 교리 .....	6
A. 도르트 회의의 배경 .....	6
B. 도르트 회의 안에서의 성도의 견인에 대한 논쟁 .....	10
1. 성도의 견인 교리에 있어서 항론파에 대한 성직자들의 신학적 입장 .....	10
2. 도르트 신조로 합의된 성도의 견인 교리 .....	17
I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의 성도의 견인 교리 .....	22
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사상적 배경 .....	22
B. 성도의 견인 교리의 내용 .....	24
1. 성도의 견인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적 의미 .....	24
2.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 .....	28
a) 인간의 자유의지 .....	28
b) 성부의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	30
c) 성자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	33

d)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 .....	38
e) 은혜 언약의 본질과 관계 .....	42
C.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성경의 증거 .....	45
1. 견인 교리를 직접적으로 증거 하는 성경 구절 .....	45
(1) 성부의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관련된 구절 .....	45
(2) 성자의 공로와 증보의 효력에 관련된 구절 .....	46
(3)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에 관련된 구절 .....	50
(4) 은혜 언약의 본질과 관련된 구절 .....	51
2. 견인 교리에 위배되어 보이는 성경 구절 .....	59
(1) 믿음을 지속하라는 권면 .....	60
(2) 배교에 대한 경고 .....	61
(3) 실제적인 배교의 경우들 .....	62
IV. 결론 .....	69
※ 참고문헌 .....	72

# I. 서 론

## A. 연구 목적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는 화란 신학교의 교수였던 제임스 알미니우스 (James Arminius)의 추종자들이 벨직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of Faith)과 하이델베르크 신조(Heidelberg Creed)가 항론 속에 담겨 있는 교리적인 견해를 따르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거기에 반박하여 세워지게 된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전적 무능력,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속에 포함 되어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교리이다. 또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교리가 아닐 수 없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며 날마다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미니우스파는 “비록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지만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신다. 죄인은 각각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인간의 자유는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의지는 그의 죄 된 본성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인은 각자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여 중생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멸망에도 이를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기된 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신이 믿기 전에 성령에 의하여 중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이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에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구원 얻는 일에 공헌할 수 있다”<sup>1)</sup>라고 주장한다. 알미니우스파는 이처럼 개인이 대속을 받는 것을 전적으로 피조물의 자유의지에 의존시킨다. 또한 일단 받은 은혜 안에서 견인하는 것도 전적으로 그 개인의 의지에 의존한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sup>2)</sup> 그러므로 이러한 신학 사상을 가진 성도들은 모두 불안하며 평안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실성이 하나님 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의 확실성을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배교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며 또한 여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자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교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리와 커티스 토마스(David N. Steele & Curtis C. Thomas)는 그들의 책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도르트 총회가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 지지된 5개의 교리를 이단으로 거부한 일은 오늘날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바 없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주장들이 현대 교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 주장들은 우리들의 세대에 있어서 좀처럼 의문에 붙여지지 않는 것들이다.”<sup>3)</sup>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같

1) David N. Steele & Curtis C. Thomas,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상화 역, (서울: 엠마오, 1996), pp.21-22.

2) A. A. Hodg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김종흠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p.306.

3) David N. Steele & Curtis C. Thomas, 「칼빈주의 5대 강령」(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p.18.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두는 신학은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당연시되어졌지만 반대로 성도의 견인 교리는 등한시 되다 못해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상한 자들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이 교리의 뿌리를 찾는 일은 개혁 주의 신학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올바른 신학으로 믿고 공부하는 자로서 할 수 있고 또한 꼭 해야 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예정론에 있어서 마지막 정점에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와 같은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할 수 있다. 꽃봉오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꽃이 필 수 없듯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서는 온전한 예정론을 말할 수 없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 증거 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 그러므로 예정론에 대해 확실히 인을 찍어 주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극치를 보여주는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개혁주의 신학의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역사와 그 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B. 연구방법과 범위**

본 논문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논문의 주제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벗어나 예정론에 대한 연구 혹은 개혁주의 구원론에 관한 연구, 혹은 칼

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한 연구가 될 위험이 있다. 물론 위의 여러 가지 주제들도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연구가치가 높은 주제들이지만 그것을 모두 연구하기에는 시간의 제약과 또한 논제를 이탈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에 본 논문은 논제에서와 같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초점을 맞춰 논문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개혁주의의 역사적 연구 범위에 있어서도 웨스트민스터 총회로부터 도르트 총회까지의 역사적인 개혁주의의 흐름을 집중력 있게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역사적 개혁주의의 뿌리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교리가 뜨겁게 논란되었던 도르트 회의를 통한 성도의 견인 교리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교리의 의의와 교리상의 그 위치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 배경을 살펴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의 성도의 견인 교리의 위치가 교리적으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이것은 살펴봄으로써 성도의 견인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에 따른 의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성도의 견인 교리의 내용을 살펴 볼 것이다. 성도의 견인 교리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성도의 견인의 신학 용어상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하여 알아 볼 것이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관계하여 알아보고 둘째로, 성자 하나님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관계하여 알아보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에 관계하여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은혜 언약의 본질과 관계하여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증거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

고, 또한 성경의 직접적인 진술과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 교리가 확실하고 무오함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성경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을 살펴보고 그 후에 견인 교리와 위배되어 보이는 구절들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주장되어지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옳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확고하게 될 것이다.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의 견인 교리를 명확히 하고 또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왜 그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소견을 제시하고 이 연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 II. 도르트 회의 안에서의 성도의

### 견인 교리

#### A. 도르트 회의의 배경

도르트 회의의 배경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화란 땅에서 이미 논쟁이 된 예정론 논쟁의 배경을 살펴 보아야 한다. 스트라스부르그와 제네바까지 칼빈을 따랐다가 1544년 아가서와 그리스도가 지옥까지 비하하신 문제에 대하여 견해 차이를 가졌던 카스텔리오(Sebatian Castellio, 1515-1563)가 칼빈과 베자의 예정론을 비판하여 쓴 그의 글을 그의 사후에 출판(De Praedestinatione, 1578)하게 되었을 때 화란에서 개혁주의적 입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번역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글의 번역자인 키른헤르트(Dirck Volckertszoon Koornhert, 1522-1590)<sup>4)</sup>와 델프구역의 설교자들(Donteclock, van der Linden) 사이에 생긴 예정론에 대한 논의가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논의 과정에서 델프 지역 설교자들이 칼빈과 베자의 견해를 포기하고 불링거 입장인 타락 후 선택설을 옹호하는 입장을 택하였다는 점이다. 그 때 제네바의 베자 밑에서 공부하

4) "그는 신약번역자, 구리 장색으로 라틴 고전을 번역했으며, 에라스무스가 세운 전통에 충실하고자 한 나머지 교파주의적 칼빈주의 신학을 합리주의적 인문주의 신학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이 신앙고백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여 당시 화란 개혁교회가 신앙고육서로 채택하고 있던 하이델베르그신앙요리문답도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하고 오류투성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의 영향을 받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타락에 대한 기사야말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증거라고 보고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항상, 다시 말해 아담의 타락 후에도 항상 협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영향을 끼쳤다.(김광채, 「근세·현대교회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p. 90.)

였고 암스테르담에서 설교자로 있었던 아르미니우스(J. Arminius, 1560-1609)가 리디우스(M. Lydius, 1539-1601)로부터 호의를 받은 터라 자신의 스승인 베자의 개혁주의 입장을 옹호해 주기를 기대하여 그에게 그 문제를 맡기게 된 것이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논쟁의 시작이 되었다.

아르미니우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예정의 대상이 누구였느냐에 대한 것으로, 1604년 이전에는 다만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칼빈, 베자, 유니우스의 입장에 대해서 논평하는 선에서 참여했으나, 1604년에 처음 자신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 때는 대표적인 창조 전 선택론자들인 유니우스와 트렐카티우스가 흑사병으로 죽게 되어 유니우스를 대신하여 아르미니우스가 레이덴 대학의 교수가 되었을 때였다.<sup>5)</sup> 그래서 그에게 노박할 책임이 맡겨졌으나 그는 멜랑히톤처럼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의지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수납된다고 생각하였으며,<sup>6)</sup>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이것은 칼빈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까?’<sup>7)</sup> 라는 답변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결정에 의해서와 나타난 모든 일은 모든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하여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과, 또한 베자도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으며 죄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고 사악한 자를 멸망사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가르친 바에 대하여,<sup>8)</sup> 아르미니우스는 이러한 타락전

5)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1998), pp. 112-113.

6) 박건택, 「개신교 역사와 신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8), p. 190.

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xii, 5,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 650.

선택설(supralapsarianism)에 반대하고 아담의 타락 전에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를 예지하셨을 따름이며 예정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속자로 결정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여 무조건적 선택에 관한 정통 칼빈주의의 교리를 수정하고 그리스도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며(유기의 작정을 부정),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참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예정에 대한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에서, 선택의 근거는 예지된 신앙(fides praevisa)이요 따라서 예정의 대상은 타락한 인간(homo lapsus), 창조해야 할 인간(homo cingendus), 창조된 인간(homo conditus, homo creatus)이 아니라, 믿을 사람(homo fidelis)이라고 하여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선택설을 주장하게 되었다.<sup>9)</sup> 그것은 아르미니우스가 타락 전 선택설에 반기를 들어, 당시의 레이덴 대학의 교수이며 철저하게 칼빈주의자로서 타락 전 선택설을 고수하고 '유기의 작정'을 믿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누가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 놓으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예정된 혹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고 아담의 타락 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위한 자유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던 고마루스(Franciscus Gomarus, 1563-1641)와 1609년 아르미니우스가 죽을 때까지 논쟁을 벌이게 되었지만, 오히려 아르미니우스와의 긴 논쟁으로 말미암아 고마루스가 레이덴 대학을 떠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스타인후르트(Steinfurt)의 김나지움(Gymnasium) 대학교수(Academicum)이었던 볼스티우스(Konrad Vorstius)에 의해서 계승되

8) Alfred Adam, *Lehnbuch der Dogmengeschichte, Bd2 : Mittelalter und Reformationszei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1), p. 392.(김광채, op. cit., p. 92에서 재인용)

9) 김영규, op. cit., p. 113.

있고, 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등의 모든 학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지만, 레이텐 교수가 되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를 레이텐 대학교수로 오게 하였던 위텐보가르트의 힘이 컸으며, 그가 궁중 설교자로 있는 동안(1601-1617)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초기 네덜란드 칼빈주의자인 얀 폴리안더(Jean Polyander, 1535-1598)의 아들이요 브레멘의 라틴학교 출신이면서 하이델베르크와 제네바에서 공부하였던 요한 폴리안더(Johann Polyander, 1568-1646)가 1611년 10월 7일에 새로운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5개월 후인 그 다음해 1612년 2월 23일에 아르미니우스의 제자인 젊은 에피스코피우스(Simon Episcipius, 1583-1643)가 교수직을 얻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 논쟁의 갈등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아르미니우스 사후 에피스코피우스와 위텐보가르트가 중심이 되어 그들의 주장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46명의 목사가 서명한 “Remonstrance”(항의서)를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과 정죄는 하나님의 예지 즉 인간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건 예정론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보편 속죄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지만 그 믿음은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부분 타락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의해서 거부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가항력적 은혜론, 성도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는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아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인내(견인)의 불확실론으로 되어 있었다.<sup>10)</sup>

이러한 갈등 상황은 항론파와 고마루스를 중심으로 하는 칼빈주의 입장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항의서에 맞서는 반항론파

10)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서울: 성광문화사, 1998), p. 329.

(CounterRemonstrance)로 나뉘어 지게 되었고, 네덜란드 의회는 두 파 사이의 회합(Collatio Hagiensis)을 여러 차례 열었으나, 합일점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대립이 격렬해져 갔으며, 점점 화란의 개혁교회 전체에 파급되어 소위 "아르미니우스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것은 오랫동안의 까다로운 준비 과정을 거쳐서 범국가적인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sup>11)</sup>

## B. 도르트 회의 안에서의 성도의 견인에 대한 논쟁

### 1. 성도의 견인 교리에 있어서 항론파에 대한 성직자들의 신학적 입장<sup>12)</sup>

팔쯔 신학자들의 진술<sup>13)</sup>은 (a) 참된 신자들의 신앙 안에서의 견인은

11) 박일민, op. cit., p. 330.

12) 이것은 '도르트 회의 Acta'의 내용과 김영규 교수의 '17세기 개혁신학'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이후로는 '17세기'로 표기함), 논문의 성격에 맞도록 필요한 부분을 요약했고, 성직자들의 판단에 해당하는 항론파의 견해는 본문과 함께 해석을 덧붙여서 각주로 취급하였다. 특별히 여기서는 다른 주제에 대한 논쟁을 제외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논쟁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3) 17세기., p. 178-180. cf. Acta., p. 551-556. 항목별 항론파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a) De volharding der ware geloovigen in't geloof is geen uitwerksel of vrucht der Verkiezing, noch ook eene gave Gods, maar is een cinditie des nieuwen Verbonds, die van God geboden is, en van den mensch voor zijne peremptoire if eindelijk Verkiezing vrijelijk volbracht moet worden.

(b)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이 견인하기에 충분하고 필요로 하는 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질 것을 풍성하게 예지하셨을 때, 그리고 신자들 자신들이 신앙의 내적인 능력을 신앙과 순종의 수단이 반복된 행위에 의해서 얻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의 능력 안에서 견인할 수 있거나 혹은 견인할 수 없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그런 그의 자가 견인의 가장 가깝고 유일한 원인이다.

(c) 참된 신자들이 단번에 지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롭게 하는 신앙과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장차 그리고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있을 뿐만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의 결과이거나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그들로부터 요구하시고 역시 그들 안에서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이다(롬8:29, 30, 35; 11:11; 딤후2:18, 19; 마24:24; 엡1:3; 2:8; 빌1:6; 롬32:39, 40; 고후3:8; 신30:6; 겔36:26, 27; 사59:21; 스킴12:10; 고전1:8; 빌1:6; 뱀전1:5; 마3:2; 행5:31; 11:18; 막1:15; 마13:11; 사59장; 고후3장). (b)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충분히 견인할 수 있도록 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되고 그렇게 강하게 보존되어 그들이 견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인하고자 하며 실제로 견인한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든 의지가든 두 가지에 대한 초자연적인 원인은 성령이시다(롬9:11; 고후2:19; 말1:6; 요10:29; 마16:16; 눅22:32; 요14:16, 17; 요일3:9; 빌1:6; 히12:1; 빌2:13). (c) 참된 신자들은 단번에 지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결코 지을 수 없고, 전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결코 타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고 타락할 수 없다(요2:19; 3:19; 시37:24; 마16:15; 롬8:32; 요일3:19; 마14:24; 요10:29). (d) 이 생에서 신자들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계시 없이도 구원에 이르는 견인의 확신을 얻고 신자들의 양심에 소박한 위로와 안식을 위해 극히 필요하다(렘31:40; 사46:3, 4; 빌1:6; 히

---

나라, 역시 자주 죄를 지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완전히 결국 타락한다.

(d) Daar kan in dit leven geen zekerheid wezen van de volharding ter zaligheid, zonder eene bijzondere openbaring, zij is ook niet noodig tot vasten troost en vrede van de conscientien der geloovigen.(이 생에서는 특별한 계시 없이 구원에 이르는 견인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수 없고, 역시 그것은 신자들의 확고한 위로와 양심의 평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Het tijdelijke geloof is het waarachtige en rechtvaardigmakende geloof ; is, zolang het duurt, gode aangenaam, en is in soort niet verschillende van het geloof, dat tot den einde toe volhardt.(일시적인 신앙이 참되고 의롭게 하는 신앙이다. 그것이 계속 지속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은 마지막까지 견인하는 신앙과 종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13:5; 딛1:2; 시23장; 롬8:39; 딩후1:12; 고전2:11, 12; 눅22:32; 요17:24; 눅17:5; 마6:10; 요11:42; 6:23). (추가) 일시적인 신앙은 참되고 의롭게 하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견인하는 신앙과 본질에 있어서 구별된다(행13:48; 롬8:29; 고전12:8-10; 13:1; 딛3:6; 요3:5; 롬8:15; 히6:4; 딛1:1; 롬11:7; 행13:48; 마24:11; 요일2:19; 눅8:15; 행10:37; 롬10:9, 10; 엡3:17; 눅8:13; 히6:4, 5; 골2:7; 램17:7, 8; 마13:20; 눅8:13; 히10:39; 뵤전1:5, 9; 마24:13; 요16:22; 롬5:3; 빌1:25; 눅8:13; 딩전1:5; 요일2:19; 눅8:18; 눅22:32).

성도들의 견인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나사우-베터라브 신학자들의 진술<sup>14)</sup>은, (a)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인하게 되고 그것 없이 아무 구원받을 수 없는 견인은 모든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보존되어 궁극적으로 필연적으로 견인케 하신다. 그것이 선택의 결과나 열매들이 성경의 어디에서나 가르친다. (b) 견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택함을 받은 인간의 의지가 견인하

14) 17세기., pp. 219-221. cf. Acta., pp. 567-571. 항목별 항론과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a) 성도의 견인은 선택의 결과나 열매도 아니요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가능적으로 제시한 알현이요 새 언약의 조건이다. 그것은 신앙의 습관과 신앙행위와 순종에 의해서 얻으며 성령의 내적인 도움을 받아 공동적으로 이룬다.
- (b) 견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다. 자신의 생득적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는 인간의 의지가 견인의 가장 가까운 원인(*de naaste oorzaak*)이다.
- (c) 참된 신자들도 흉악하고 직접 양심을 파괴하는 죄, 참으로 성령 훼방죄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강박케 되어 죽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칭의의 신앙,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결국 타락할 수 있다.
- (d) 참된 신자는 현금 상태에 대해서 그의 신앙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보증된다. 그가 신앙 가운데 견인할 것이라는 미래의 상태를 통하여 그가 보증되는 것이 아니다.
- (e) 견인과 구원의 확신은 이 세계에서 신자들의 어떤 확고한 위로와 양심의 평화에 필연적이기는 커녕, 그 반대로 자체로부터와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이 가르침은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전경배에 대해서 해롭고 유해하다. 그 대신 이에 대한 의심의 가르침이 특별히 유익하고 그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기사에게 찬양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안이함과 졸음을 깨우는데 이바지한다.
- (추가부분) 일시적인 신앙은 참되고 완전하며 의롭게 하는 신앙이다. 그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참된 신앙과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도록 제공되었다(bepaal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건인의 가장 가까운 원인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이다. (c) 참된 신자들이 종종 흉악한 죄에 빠지고 그들의 야심에 상처를 입으며 성령을 슬프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잃으며 하나님의 진노아래 떨어질지라도, 그들은 한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씨(het zaad Gods)는 남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전적으로 결국 타락할 수 없다. (d) 참된 신자들은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의 칭의와 영생으로부터 보증될 수 있고 보증됨에 틀림없다. (e) 건인의 멋진 가르침은 부지런히 선행을 행하도록 하는 자극이요 우리 안에 신앙을 기르고 사랑에 불을 붙이며 소망을 유지하며 영적인 평온을 야기하는 대로 확고한 위로의 내용이다. 그 반대로 신자들에게 구원에 관한 의심을 제공하는 가르침은 그 자체로부터 그리고 그 본성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전 경배에 대해서 해롭고 유해하다. (추가부분) 일시적인 신앙은 의롭게 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그 본질 자체에 있어서 그 자체로부터 구별된 것이다.

제네바 신학자들의 진술<sup>15)</sup>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선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고 미리 이루어진 도모에 의해서 죽으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그들을 그의 영적인 몸 안에 자신과의 강한 결합으로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자들을 결국 성령의 인도와 살아 있는 통치에 의해서 영접하여 보존하시고 증진하시며 완전케 하시고, 동일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탈하지 않게 하신다(사55:22; 롬8:29; 빌1:16; 살후2:17; 고전1:7; 살전3:12; 램24:6; 사6:13; 딤후2:18; 눅22:31; 요17:12; 요10:17; 요6:39; 롬8:33; 요일3:9; 요8:35; 요14:16; 램31:33; 램

15) 17세기., pp. 223-224. cf. Acta., pp. 571-573.

32:40). 견인이 비록 우리의 구원의 유익(건덕)을 위해서 모든 신자들로부터 요구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에 합하고 자신의 모든 부지런함과 노력과 배려를 그것에 사용하시는 그런 자들 외에 소유되거나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에 확실한 조건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서 순수히 은혜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참된 은사가 거기에 있다(히3:13, 6; 롬11:22; 요8:31; 골1:22; 요3:27; 히13:21; 엡5:10). 자연과 인과의 질서에 따라 참되고 고유한 결과나 열매로서 견인은 선택과 칭의에 뒤따른다. 그러나 지식과 감정, 우리의 양심을 고려할 때, 견인의 방식, 증가와 확고성에 따라 선택의 은패성은 고백되고 있고, 견인의 마지막 행위는 육체의 의심들과 이중성들을 넘어 마지막 승리임을 우리는 고백한다(계22:11; 벧후1:10; 요일3:19). 견인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부끄럽게 되는 자는 둔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며 스스로 은혜에서 후퇴한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브레멘 신학자들의 진술<sup>16)</sup>은, 우리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할 때, 성도들에 의해서 중생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의 영을 통하여 구원의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자들만을 이해한다. 견인이란 말을 통해서 일단 중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시작하여 자녀로 남아 있고 확실하게 그의 후사가 된다는 확고성과 견고성을 이해한다. 참으로 피조물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자연에 있어서 보존이 창조에 첨가되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보존이 재창조 혹은 중생에 접촉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자들은 다시 전혀 자녀가 아니거나 전혀 외인들이 되거나 단번에 진노의 자녀가 되는 상태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바르게 중생된 자들은 견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16) 17세기., pp. 240-244. cf. Acta., pp. 578-579.

능력에 의해서 견인할 수 있고 견인하고자 한다고 우리는 설명한다. 그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요(살후2:15; 고전 16:15; 딤후3:14; 요15:4) 하나님께서 견인한 자에게 보상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요(롬8:3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요(빌4:13),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부패로 유혹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진실이다(마24:24; 요 10:28, 29). 이로부터 얻은 결론은 중생된 자는 확실하게 견인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롬8:30, 35; 요10:27, 28). 이런 견인의 확고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자들을 그리스도의 뜻을 통하여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안에서와 그와 더불어 구원하고 생명의 길에 있어서 모든 방해에도 구원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로 확실하게 결정하였던, 하나님의 그 의논의 불변성에 의존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구주의 영광에 속하고 공로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중생된 자들이, 아무리 과감하게 죄에 대해서 싸울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일깨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는 육체의 많고 큰 병(zwakheid)으로 짐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들 스스로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극복하도록 한다. 그들은 그런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주 심히 화나게 한다. 그들이 그러하면 할수록,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어 참으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참회의 진지한 추구로 돌이키게 된다. 또 중생된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를 당할 때마다, 그들 안에 일어난 만큼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들 스스로 닫고 있고 성령을 슬프게 하며 어떤 양심과 마음의 순수성, 성령의 기쁨, 위로의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관심하여 기도하고 섬기고자 하는 열심, 기타 성령의 은사들을 잃는다. 그 반대로 그들은 양심의 놀라움과 침식을 느낀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경험을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중생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반적인 타락에 의해서 단번에 떠나, 적의적인 미움에 의해서 저를 따르며 마귀와 같이 의도된 악의를 가지고 죄를 짓고 스스로 하늘의 모든 은택들로부터 박탈할 만큼 그 이상 더 멀리 탈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타락에 대한 예는 성경에서 예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총애로부터 타락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노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같이 그들을 미워하시지 않고 그들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징벌하신다(삼하7:14; 시89:33, 34, 35).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오용을 특별히 피해야 한다. 하나는 그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들 가운데 감추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조심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책적인 모든 의무들에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타락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이런 수단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의지 안에 외에 다른 곳에서 확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의와 거룩을 추구하도록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찰, 받은 세례의 기억, 성만찬의 경건하고 빈번한 사용, 절도 있게 사는 것, 세상적인 분위기를 피하는 일 등과 같은 일에 몰두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타락으로부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적인 긍휼을 조심하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로 돌이켜, 기꺼이 그리고 감사하게 경건한 지체들에 대한 훈계들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믿었고 역시 취급된 이런 교리는 신적인 은혜의 충만과 견고성을 천거하고 육체의 부주의성을 제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어울리는 경애와 신뢰를 품는다. 그래서 중생되고 하나님의 영입된 자녀들인 우리가 우리의 연약성에 따라서 독생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과 완전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체들로서 머리이신 그와 같이 되도록 한다.

참된 성도들의 견인에 대해서 화란 교수들의 입장<sup>17)</sup>은, (a)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수단을 위해 선택해야 할 선행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동기화됨이 없이, 신앙 가운데 참된 성도들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선택에 이르는 열매를 야기한다(롬8:29, 32; 딤후2:19; 요6:37; 롬11:7; 살후2:13). (b) 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은사이며(신30:6; 겔36:26, 27; 램32:40; 빌2:13; 롬5:5; 뱀전5:10),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고전1:30; 요17:15, 20).

## 2. 도르트 신조로 합의된 성도의 견인 교리

이 조항과 관련하여 신조의 고백형식은 먼저 항론파들이 제시한 잘못

17) 17세기., p. 290. cf. Acta., pp. 846-847. 항론파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a) De volharding der ware geloovigen in het geloof is geene veroorzaate vrucht der verldezing, door dewelke God gezegd wordt zekere bizondere personen, niet bepaald zijnde met eenige voorwaarde der gehoorzaamheid, ter zaligheid verkoren te hebben.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순종의 어떤 조건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신앙 가운데 참된 성도들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선택으로부터 원인화된 열매가 아니다.)

(b) 특별히 언급된 견인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다. 즉 신자들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죽음에 의해서 얻는 은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많은 가능한 조건들 아래서 하나님께서 규정 하였고 마지막 선택 전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인간 안에 요구하였으며, 많고 다양한 신앙의 행위들과 순종에 의해서 신앙과 순종의 부차적 능력을 얻었을 때, 인간이 가볍게 따를 수 있으며 그렇게 성령의 내적인 위로가 동반할 때, 따르고자 하고 보통 따르는 하나의 계명이요 새 언약의 도덕적 조건이다.

된 주장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배격하는 성직자들의 답변으로 되어 있다.

첫째로 항론파들은 진실한 성도들의 견인은 택함받음의 결실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요 다만 새 언약의 조건일 뿐인데, 이는(마치 그들이 주장하듯이) 자기의 결정적인 선택과 의로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를 통하여 이 조건을 채워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성도의 견인은 택함 받은데에서 나오는 것임을 증거하며, 택함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의 중보되심으로 인하여 이 성도의 견인을 받는 것이라고 증거한다(롬11:7, 8:32-35).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 되는 것이요, 비록 성도들이 인내하기에 충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좌우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르트 신조의 배격은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잘못된 주장이다. 오히려 복음적 교리는 인간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감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써 돌릴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고전1:8)이라고 증거 한다.

셋째로 참 신자요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의롭다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은혜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서 벗어나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배격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 중생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이 모든 사실을 무효화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다(롬5:809; 요일3:9; 요10:28-29).



넷째로 참 신자요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도요한은 요한일서5:16-17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증거 한다.

다섯째로 우리는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미래에 있을 성도의 견인에 대한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 신자들이 가지는 확실한 위로를 이 세상에서 빼앗아가며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다시 침투해 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의 확신을 그 어떤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계시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표적이나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증거 한다(롬8:39; 요일3:24).

여섯째로 성도의 견인이나 구원에 관한 확신은 그 본성을 따져보면 나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거룩함이나 선한 행동, 또는 그 밖의 다른 경건한 행위를 행하는데 방해할 뿐이요, 오히려 그러한 확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내재하는 성령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경이 보여주는 신·구약의 성도들의 생애가 믿음의 인내와 구원에 관한 확신 속에 기도하고 경건하여 나태하지 않은 삶의 모습과 모순이 된다(요일3:2-3).

일곱째로 잠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과 칭의를 받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는 단지 그 기간에 있을 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마13:20과 눅8:13 등에서 잠시 동안 믿은 사람과 참 신자와의 차이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으나 참 신자는 좋은 땅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으며,

전자는 뿌리가 없으나 후자는 견고한 뿌리가 있으며, 전자는 열매가 없으나 후자는 지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여덟째로 중생함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된다든지 또는 몇 번씩 새롭게 되는 일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사도 베드로의 말과 모순 된다(벧전1:23).

아홉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하여 믿음에 거해야 할 것을 그 어디에서고 기도하신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눅 22:32(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의 말씀과 요17:11, 15, 20의 말씀과도 모순 된다.<sup>18)</sup>

이와 같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도르트 회의의 성직자들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된 자는 죄의 지배와 노예로부터 해방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육체와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로부터 일상의 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케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도피하도록 하며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실천들에 의해서 죽도록 하며,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 다스릴 때까지 완전의 한계선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항존적인 원인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내주하는 죄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회심한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남아 있을 수 없고 그들 자신의 능력들 안에서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

18) Acta., pp. 278-280. cf. 최병섭, 「개혁교회 신앙고백서」(광주: 도서출판 신성, 1997), pp. 417-421.

그들에게 단번에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친히 자비로 확증하시고 끝까지 능력으로 보존하신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을 은혜 가운데 확증하시고 보존하시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비참한 타락에서조차도 선택의 불변의 의지에 따라 성령을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거두시지 않는다. 그들이 영접의 은혜와 칭의의 신분으로부터 타락할 만큼 혹은 죽음의 죄에 이르거나 성령을 훼방하는 죄에 이를 만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견인과 보존이 갖는 뿌리와 특성들이 성도의 견인으로 고백되었다. 따라서 보존의 조건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긍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구원의 방법과 서정조차도 헛되거나 없이 될 수 없다는 성격과 함께 고백되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 교리와 계시된 말씀 속에서 충분히 나타난 확신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만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성도를 향하신 위로를 심어 주셨기 때문이다. 사단은 이를 미워하고 이 세상도 이를 조롱하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를 남용하고 이단들도 이를 적대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날마다 이 사랑을 갖고 마치 놀라운 보배를 가졌듯이 이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까지 성도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따라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께만 영원토록 영광이 있어야 할 것이다.<sup>19)</sup>

---

19) Acta., p. 278.

### Ⅲ.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의 성도의 견인 교리

#### 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사상적 배경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이미 살펴 본대로 다섯 조항으로 된 항의각서는 만장일치로 배격되었고, 벨직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함께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채택되었다. 가장 완벽하고 뛰어난 화란어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직접 재번역할 것도 결정하였다. 그것은 정통 칼빈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달성한 것이다. 그 결과인 도르트 신조는 다른 신조들과는 달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취급하지 않고, 다만 항의각서에 제시된 다섯 조항과 관련된 교리들만 취급하였지만 이 다섯 교리들은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들이며,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의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이성에 근거한 추론이 아닌 풍부한 성경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선시 하는 칼빈주의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이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화란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날카로운 대립을 거친 이후의 칼빈주의 체계를 성숙한 학문적 형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주일 문제를 제외한 주요 사상들은 이미 대륙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그 형식은 전적으로 영국의 것이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대륙의 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아 아르미니우스 논쟁의 결

20) 박일민, *op. cit.*, p. 333.

론을 구체화시켜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의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모델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총회는 스코틀랜드교회의 대표들을 참석시켜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었음에도 초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도 그 모델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애초에 개정하려고 했던 영국교회의 신조를 모델로 취하면서 영국교회의 신조와 근본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램베드신조(Lambeth articles : 1595)의 제정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어 웃서 감독이 제정한 아일랜드 신조(Irish Article : 1615)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 목적은 어거스틴 사상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39개조 신조의 교리체계를 보다 철저한 칼빈주의 체계와 세밀한 논리로 표현하려는데 있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각 장의 순서, 배열 방식, 명칭, 용어, 특히 예정론과 성찬론에 나타난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 등에서 현저하게 아일랜드 신조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창조에서 최후심판에 이르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주요 내용들을 33개장으로 나눈 것과 영국과 스코틀랜드 각 지역에서 모인 그 많은 성직자들이 신학의 전체 내용에서 조화를 이룬 것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교회가 대륙의 개혁교회와 서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모든 것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할 것과 삼위일체(2장)에 이어서 바로 이중예정(3장)을 고백하는 점에서 예정이 창조나 섭리보다 앞선다는 고백은 당시의 신학적 관심사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막아내기 위하여 도르트 회의가 결정한 예정론을 중요시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1) 박일민, op. cit., p. 468.

어느 신앙고백서보다도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정밀하고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sup>22)</sup> 그래서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프로테스탄트 기본 교리들을 이 신앙고백서(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더 명백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함축성이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표현해 놓은 신조는 찾아볼 수가 없다.”<sup>23)</sup>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통성과 신학적 가치를 인정했다.

이처럼 도르트 신조에서 결정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요하게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다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성도의 견인 교리를 더욱 명료하고 견고하게 정립하게 될 것이다.

## B. 성도의 견인 교리의 내용

### 1. 성도의 견인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적 의미

개혁주의 구원론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바빙크는 이것을 구원의 복이라고 말한다. 바빙크는 구원의 복을 세 부류로 분류한다. 바빙크는 죄(sin)는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의 파기, 하나님 형상의 상실, 타락의 힘에 대한 복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죄책(guilt)과 부패(오염)와 비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 율법의 모든 요구의 성취, 사망에 대한 승리를 통해 우리를 이 세 가지로부터 구원하셨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은

22) 노인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적 정통성 연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Th. M.) 청구논문, 2003. p. 43.

23) Philip Schaff, 「신조학」, 박일민 편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 12.

다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는 칭의에 의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여기에는 죄의 용서, 양자 됨, 하나님과의 화목, 영광스러운 자유가 포함된다. 둘째, 그리스도는 중생, 내적 부르심, 회심, 갱신, 성화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신다. 셋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 인간을 보호하시며, 인간을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보존, 견인, 영화에 의해 인간이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하신다. 첫 번째 부류의 복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 부여되며, 두 번째 부류의 복은 성령의 중생시키시는 사역에 의해 부여되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속한다. 세 번째 부류의 복은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보증으로서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인 치시는 사역에 의해 우리에게 부여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비참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한다.<sup>24)</sup> 이처럼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는 개혁주의 구원론 가운데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앞서 위치하는 교리이다. 하지만 위치상으로 구원론 가운데서 마지막에 위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도의 견인 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끝은 영화의 단계에 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이거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제17장1절)”<sup>25)</sup> 이것을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정의 내린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며 은혜의 신분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

24) Louise Berkhof, 「조직신학(하)」, 권수경·이상원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p.662-663.

25)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p. 45.

람들이 그 신분에서 완전히 혹은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은혜의 신분에서 끝까지 건디어 내어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교리이다.”<sup>26)</sup>

때때로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말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말하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의 마찬가지로 성도의 견인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사역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성도들을 용납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1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 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sup>27)</sup>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것은 그의 영원한 목적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 구주, 세상의 심판자가 되도록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인도로서 된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또한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일하신다. 바빙크는 성도의 견인과 관련

26) Louise Berkhof, op. cit., p.798.

27) G. I. Williamso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p.118.



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써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활동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눅22:32), 그들이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서 보존되게 하시며(요17:11, 20),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며(히7:25),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요일2:1), 장차 그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요17:24).”<sup>28)</sup>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17장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A. A. 하지는 성령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효과적(내면적) 부르심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1. 이런 내면적 부르심이 있으며,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2.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 그러나 그들만이 포함된다고 한다. 3. 효과적 부르심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1) 성령뿐이라고 하며, 성령께서, (2) 복음의 계시된 진리를 도구로 쓰신다고 한다. (3)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중생하기 전에는 성령의 모든 일반적인 영향을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자유로 향거했으며, 그들을 중생하게 만드는 성령의 특별한 영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동적이다. 4. 이 내면적 부르심의 성격에 대해서는, 성령의 전능하며 효과적인 권능이 사람의 영혼에 직접 작용해서 그 사람이 결심하게 만들며 효과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한다. 5. 부르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의 도덕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바꾼다고 한다.”<sup>29)</sup> 이처럼 성도의 견인은 삼위의 어느 한 위격에만 관련된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28)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630.

29) A. A. Hodge, op. cit., p.222.

## 2.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

### a) 인간의 자유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분명하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sup>30)</sup> 그러나 알미니우스파나 로마카톨릭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개인이 대속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개인의 구원을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대속도 아니요, 성령의 은혜도 아니라고 하므로 일단 받은 은혜 안에서 견인하는 것도 전적으로 그 개인의 의지에 의존한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틀릴 수 있으며 변할 수 있으며, 금생에서는 유혹을 당할 수 있으므로 물론 신자는 항상 완전히 배교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상태로 죽어 결국 멸망하리라는 결론이 된다.<sup>31)</sup>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가? A. A. Hodge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관련하여 자유의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교리는 사람의 자유 의지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오게 만드시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도록

---

30) “이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제17장2절)

31) A. A. Hodge, op. cit., p.306.

강제하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이 기꺼이 견인하게 하신다. 이것이 사실의 전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자유를 제한함 없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지배하실 수 있으시며 또 사실 지배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하게 하시며(시110:3),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빌2:13) 칼빈주의자와 같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도 버릴 수 없는 귀중한 진리다.”<sup>32)</sup> 이처럼 A. A. Hodge도 사람의 자유의지보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견인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모든 존재가 은혜라고 한다면 결국 마귀도 은혜로 존재하고 모든 존재하는 자가 가진 모든 것, 즉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소유 등이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그 분이 보증으로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생명의 자유지향적 공간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구조나 형식이다. 자유의지에는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구조화된 것이다. 율법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어떤 틀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과 같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선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자유선택은 총체적 개방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폐쇄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의지의 실태이다. 따라서 그런 자유선택의 행위가 자유의지의 본질이나 실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실태의 현상에 불과

---

32) Ibid., pp.306-307.

하다는 말이다.<sup>33)</sup> 김영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의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된 의지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도 그의 원인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극미시와 극거시의 세계들을 움직이심으로 자유의지라는 형식만 갖추도록 하신 것뿐이다. 그 자유의지들이 어느 경우이든 사건의 원인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sup>34)</sup>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나 로마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의 당락이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조나 형식이라는 것이다. A. A. 하지도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은혜 안에서 견인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 자신의 자유의지와 관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신다”<sup>35)</sup>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견인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b) 성부의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제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 자신들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다.”<sup>36)</sup> 이처럼 성도들의 견인은 하나님 아버지

33) 김재선, 「칼빈의 구원과 관련된 가까운 원인들과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에 대하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Th. M.)청구논문, 2002. pp.55-56.

34)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Ⅲ(구원론)」,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3), p.35.

35) A. A. Hodge, op. cit., p.309.

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온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의 확실성과 무오성을 주장할 수 있다. 후크마(Hoekema)는 이렇게 말한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참 신자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내한다.”<sup>37)</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3장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으로 예정하셨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고 불 가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서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의 뜻의 비밀한 계획과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실 때 그는 우리의 신앙이나 선행 혹은 이들 중의 하나의 견인이나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하지 아니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었다.”<sup>38)</sup> 이러한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근거한다. 하지(A. A. Hodge)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명철한 창조주와 선견지명이 있는 지배자로서 그 피조물 전체의 존재와 운명에 관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목적과 거

36) 김의환, *op. cit.*, p. 45.

37)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p. 386.

38) A. A. Hodge. *op. cit.*, pp. 94-95.

기 관련된 종속적 목적들과 수단들이 한 완전한 체계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존재이시므로, 그의 계획과 그 모든 요소들은 영원 전부터 완전하며 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무한하며 영원하며 변할 수 없으며, 절대로 지혜로우며 강력하며 최고 주권자이시므로, 그의 목적도 그의 이 모든 본질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지성이 절대로 완전하고 그의 계획이 영원하며, 그의 궁극적 목적이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단일 목적임이 계시되었으며, 그의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일 전체가 한 체계를 이룬 것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을 논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할 수 있다 : 즉 그의 계획은 모든 것을 총괄한 단일 의도며, 그 의도를 위하여 선정된 목적들 뿐 아니라, 그 목적들을 위한 수단과 조건들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sup>39)</sup> 여기에 관련하여 바빙크(H. Bavinck)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서 비공유적 속성들을 소유하시는 것이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유하며 그에게만 합당하며, 피조물들에게는 없고, 피조물들과 공유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의존적이며, 가변적이며, 복합적이며, 시공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으시며 다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행17:25; 롬11:36) 의미에서 독자적이시다 (independent). 하나님은 불변하시며(unchangeable)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모든 변화와 바뀌는 현상은 피조물 때문이요 또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약1:17). 하나님은 단순하시며 (simple), 복합적이 아니시고, 영과 물질, 생각과 범위, 존재와 특성들, 이성과 의지 등의 온갖 뒤섞임에서 자유로우시며, 그가 지니신 모든 것이 또한 순결한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다(시36:9; 요5:26; 요일1:5). 그는 시간

39) A. A. Hodge., op. cit., p. 88.

을 초월하시면서도 그의 영원하심으로 시간의 매 순간마다 침투하신다는 점에서 영원하시다(시90:2).”<sup>40)</sup>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공유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비공유적 속성으로서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그는 아무것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결정되기 때문에 그의 결정은 변함이 없으며 그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견인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선택의 교리는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 선택은 어떤 사람들이 일정한 외적인 특권으로 호의를 입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된 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될 것이며 필히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선택은 궁극으로의, 즉 구원으로의 선택이다.<sup>41)</sup>

### c) 성자의 공로와 증보의 효력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은 성자의 공로와 증보의 효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택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택자들이 끝까지 견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sup>42)</sup> 그렇게 된다면 성자의 구속 행위는 택자들의 구원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40) Herman Bavinck, op. cit., p. 158.

41) Louis Berkhof., op. cit., p. 800.

42) “그러나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속죄의 가치와 능력의 한도가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속죄의 가치는 그것을 행한 인격의 존엄하심에 기인한다. 또한 그것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고 따라서 전 인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족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만 적용시킨 의미에서 한정되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Lorraine Boettner, 「칼빈주의 예정론」, 홍의표 번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2), pp. 178-179.)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의 진실성은 성도의 견인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 튜레틴(F. Turretin)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감당하셨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공로적 효력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 시키셨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 주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정도에 있어서 완전한 까닭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위엄과 그리스도에게 집행된 형벌의 엄정함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모든 부분과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있어서도 완전할 수밖에 없다.”<sup>43)</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에서 중보자 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 그의 유일무이하신 아들,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중보자로 택하시고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43) Francis Turretin, 「개혁주의 속죄론」, 이태복 옮김, (서울: 개혁된 신앙사, 2002), pp. 92-93.



그의 아들 주 예수를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모든 것의 상속자로,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선택하셨고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 한 백성을 주시 사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적당한 때에 구속받고, 부름 받고, 칭의 받고, 성화 받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셨다.(제1절)<sup>44)</sup>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관련하여 두 종류의 일을 감당하신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여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죄책을 대신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정한 진노를 풀며,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우리의 인격과 섬김이 하나님에게 실제로 용납되게 하신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또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용납될 만한 봉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진리를 계시하며, 그들이 그렇게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하도록 깨달음과 능력을 주며, 그들을 지도하며 보전하며,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영향을 제어해서 악한 세상의 힘과 죄에서 그들을 완전히 구출하시는 것이다.<sup>45)</sup>

또한 제8장 제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되고 있다.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연합체이신 주 예수는 성령에 의하여 한량없이 성화되셨고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이 주 예수는 자신 안에 보배 같은 온갖 지혜와 지식을 지니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주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깃들여 있기를 기뻐하셨다. 주 예수는 거룩하시고, 손상을 받지 않으셨고, 결코 오염되지 않으셨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처럼 그가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신 목적은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무를 충분히

44) A. A. Hodge., op. cit., pp. 176-177.

45) Ibid., p. 178.

수행하는데 있는 것이다. 주 예수는 이 직책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이 직책으로 부름 받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심판을 주 예수께 맡기셨고 이 모든 권능과 심판을 실천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셨다.”<sup>46)</sup> 계속해서 제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되고 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직책을 가장 자발적으로 기쁘게 떠맡으셨다. 그는 이 직책을 충분히 수행해 내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셨고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즉 그는 가장 무시무시한 영적 고통을 감수하셨고 가장 쓰라린 육적 아픔을 경험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장사지낸바 되셨고, 죽음의 권세 하에 계셨으나 썩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사흘 만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니셨던 몸과 꼭 같은 몸을 가지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또한 그는 이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고 계시다가 세상 끝 날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sup>47)</sup>

이와 같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이 성부와 동일하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제2위이신 하나님이셨지만, 택자들을 위하여 낮아진 처지에서 중보로서의 직책을 다하셨다. 그는 인간으로, 그것도 미천한 환경에서 나셨고, 율법의 제정자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으며, 가장 무서운 영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모두 당하셨다. 또한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무한히 자기를 낮추신 것이요, 지성적 피조물 전체에 대해서 초월적이며 항구적인 혜택이 되는 행위였다. 이 모든 비하의 신분을 겪으면서 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얻게 하신 택자들의 구원과 견인이 확실하고 무오하다는 것을 거부

---

46) Ibid., p. 188.

47) Ibid., p. 189.

한다는 것은 그분의 수고와 사랑에 대한 거부이며 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승귀의 신분에서도 중보의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신다. 벌코프(Berkhof)는 승귀의 신분에서의 중보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속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보에도 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속죄를 통해 율법의 모든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따라서 그가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신 사람들에게 대한 여하한 법적 고소도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참소자 사탄은 항상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고소에 힘을 쏟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 모든 참소에 대해 그의 완성된 사역을 보이심으로 대처하신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보혜사요 대언자로서, 그들에 대한 일체의 고소에 답변하신다. 또한 우리가 성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기도에 이러한 요소가 필요한 것은,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미흡하고 사소하며 피상적이고 심지어 불성실한 데 비해 이를 들으시는 분은 거룩함과 위엄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중보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요소도 있다. 만일 중보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한 가지라면, 결과적으로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일, 곧 구속 사역의 완성과 관계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못 미치거나 기도 중에 종종 빠뜨리는 영적 필요들도 성부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도 못하는 위험들과 감지하지 못한 우리를 노리는 대적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sup>48)</sup>은 생각하기만 해도 위

48) “그렇다고 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청하시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도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증거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말이다. 그리스도의 간구는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로가 되는 사실이다. 그는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하신다.”<sup>49)</sup> 그리스도는 그가 대속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또한 오직 그들만을 위해 중보 하신다. 또한 그의 모든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동등한 권위자로서 드리는 기도로써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기도이다. 또한 그는 그가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공로를 이루셨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가 그러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성도들이 끝 까지 승리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것임이 분명하다.

#### d)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라고 가르치고 있다(딤후3:5). 또한 그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증거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갈5:25).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요6:63). 구원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시키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며 또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요14:7; 롬8:9; 고전3:16; 딤후1:14). 이처럼 성도의 모든 구원의 과정

---

순종하신 그 아들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은 은혜를 바라는 간청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 있는 의지의 표현이요(요17:24), 열방을 그의 기업으로, 또한 땅 끝까지 모든 것을 그의 소유로 달라고 하시는 요구인 것이다(시2:8). 순종하셨고 또한 위엄의 보좌에 높이 오르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시요, 아버지의 친아들이시다. 하늘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거룩하게 하셨고 완전하게 하신 분은, 또한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의 중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다.”(Herman Bavinck., op. cit., p. 472)

49) Louis Berkhof., op. cit., pp. 646-647.

은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김길성 교수는 구원론(soteriology)을 한마디로 정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택함 받은 개인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교의학적으로 논하는 학문이다”<sup>50)</sup>라고 말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자의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제2절에서 분명히 “성도의 견인은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sup>51)</sup>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 하신다는 것에 대해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우시는 영(Auxilio Spiritus) 즉 성령의 거룩한 영향과 작용에 의해 견인에 도달한다. 하나님의 영은 은혜를 완전히 이끌기 위해 신자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그분은 새로운 기름을 떨어뜨려 은혜의 등불이 불타오르도록 한다. 성령은 은혜를 일으키고, 강화시키고, 증가시키며, 그리스도인이 그의 믿음의 결국 곧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나아가도록 한다(벧전1:9). 바울 사도는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딤후1:14)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집을 계속 손질한다. 마찬가지로 신자 속에 거하는 성령은 은혜를 계속 손질한다. 은혜는 생수의 강으로 비유된다(요7:38). 이 강은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흐르게 하는 샘이기 때문에 결코 마를 수 없다.”<sup>52)</sup> 성령은 효과적이 부르심으로 성도를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부르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도가 끝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50) 김성봉, 「성령과 교회」, (서울: 하나, 1996), p.63.

51) A. A. Hodge., op. cit., p. 303.

52) Thomas Watson, 「신학의 체계」, 이훈영 옮김,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 494.

그래서 성령은 믿음 가운데의 인내 혹은 견인과도 불과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인치심(seal)과 보증(pledge)이라는 성경의 두 비유적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에베소서 4:30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의 최후의 구속의 보증이라고 쓰여져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신약시대에서 종종 소유권을 나타낸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함은 또한 성령께서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케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13-14에서 바울은 “또한 믿어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는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보증되신 자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arrabon은 또한 보증 혹은 서약(pledge)이라고도 번역되어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인 미래의 영광이 그 언젠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 어느 것도 그 기업을 우리에게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이다. arrabon이란 단어가 또 다른 두 군데에서 성령을 가리켜 사용되고 있다. 고린도후서 1:22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또한 고린도후서 5:5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1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 새 땅에 있을 우리의 마지막 기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sup>53)</sup>

하나님의 씨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요일 3:9)라는 구절에 근거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씨’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1)혹자는 신적인 생명의 원리라고 주장한다(Smith, Marshall). (2)혹자는 집합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Wohlenberg, Stott). (3)혹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Oecumenius, Theophylactus). (4)혹자는 말씀 또는 복음이라고 주장한다(Augustine, Dodd). (5)혹자는 성령이라고 주장한다(Calvin). 다섯 가지 견해 중 마지막 두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어 있음(시119:11; 렘31:33)과 성령께서 내주하심(롬8:11; 고전3:16)은 동시적이고 불가분리적이다.<sup>54)</sup> 성령과 말씀으로써 성도가 끝까지 견인 할 것이라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제4절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참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며 끊어지기도 한다. 이런 일은 확신을 간직하는 데 게으르고 양심을 괴롭히며 성령을 근심케 한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일이나 돌연히 겪는 심한 시험에 빠질 때 생긴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어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흑암 중에 걸으며 빛을 보지 못하게 방임하여 두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를 향한 사랑, 의무를 이행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아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며 심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언젠가는 구조를 받는다.”<sup>55)</sup>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택자들의 속에 내주하시는 한, 그 어떤 택자도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penitus excedere*). 이것이 바로 성도의

53) Anthony A. Hoekema, *op. cit.*, pp. 54-55.

54) 강병도 편, 「호크마 주석(요한일서-요한계시록)」(서울: 기독교출판사, 1993), p. 55.

55) 김의환, *op. cit.*, pp. 47-48.

견인의 확실한 근거이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날마다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

### e) 은혜 언약의 본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제3절의 내용<sup>56)</sup>과 같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받기로 한 약속을 아담이 자신과 인류의 대표로서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말았다. 이 사실은 곧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 혹은 부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런 타고난 부패의 결과로써, 자연적인 인간은 영적으로 신한 일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용어에 의해서 생각된 무능함은 영적인 무능함이다. 그것은 죄인이 영적으로 너무나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구원에 적합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7)</sup>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성도의 견인 역시 인간의 영향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 해 준다.<sup>58)</sup>

만일 저 구법(舊法)이 보충되든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하리라는 결론이 된다. 인류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편에서 새로 은혜를 베푸셔서 개입하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정확히 지켜야 할 조건들이 명확하게 발표되어야 한다.

56)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계약에 의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제3절)

57) David N. Steele & Curtis C. Thomas, *op. cit.*, p. 35.

58) “성경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이 신자의 견인에 역사하신다. 성부는 세우시는 분이다(고후1:21). 성자는 확증하시는 분이다(고전1:8). 성령은 보증하시는 분이다(엡1:13). 이처럼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Thomas Watson, *op. cit.*, p. 495.)



바꿔 말하면, 새 언약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전 법에서 제시된 것과 다른 조건하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언약이어야 한다.<sup>59)</sup> 이것이 은혜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인류 구원의 기초에는 삼위일체 사이의 의논(*consilium*)이 있었다.<sup>60)</sup> 이 의논 가운데 성자는 때가 차면 그 위격에 인간적 요소를 취하시고, 선택된 자들의 중보와 보증으로서 그들을 모두 대표하시기로 되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양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가르친다. ①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②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 ③ 그들의 개인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④ 그들의 구원에는 어떤 축복들과 이점들이 포함될 것인가? ⑤ 중보는 그 순종의 결과를 어떤 직책상의 상을 받으시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었다.<sup>61)</sup>

① 성부께서는 중보께서 “영혼이 수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의 씨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중보에게 약속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사

---

59) A. A. Hodge, *op. cit.*, p. 166.

60) “Louis Berkhof는 구원의 의논에 있어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적 연합이 관념적으로 성립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의논에서 이루어진 언약적 관계를 그는 고려하여 그 언약을 구원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칭하여 언급하고 있다(A. A. Hodge도 같은 입장에서 있다-그의 책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p. 168, 308을 참고하라). 더구나 그 구원의 언약에서 이미 그의 백성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고 믿었고 동시에 그의 의도 그들에게 전가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작정이나 예정 대신, 그런 구원의 언약에 의해서 설명된 신비적 연합이 이신칭의의 영원한 기초요 모든 영적인 축복들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근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작정이나 예정이란 용어로 충분한데, 아직 실제적으로 대상이 창조되거나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까지 언약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한 사용이라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삼위일체 사이의 의논(*consilium*)이나 교통(*communicatio*)이란 말이 있는데도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의논이 언약적 관계로 취급하여 구원의 언약이라 함은 언약개념의 과도한 적용이라고 생각된다.”(김영규, *op. cit.*, p. 37)

61) A. A. Hodge, *op. cit.*, p. 168.

53:10, 11; 42:6, 7; 시89:3, 4).

②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이미 받은 사명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요10:18; 눅22:29),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받으실 상이 있다고 하셨다(요17:4, 5).

③ 중보로서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아버지께서 백성과 영광을 상으로써 자기에게 주시리라고, 항상 말씀하신다(요17:2, 24).

두 번째로 이 언약에서 약속된 것은 (1)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한 모든 필요한 준비와(히10:5; 사42:1-7), (2)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지지와(눅22:43), (3) 찬란한 상이었다. 여기 포함된 것은 ㉠ 그리스도가 중보로서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신 위격이 되신다는 것이었다(요5:22; 시110:1). 그리고 ㉡ 언약에 있는 모든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중보의 손에 맡겨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마28:18; 요1:12; 7:39; 17:2; 행2:33). 또 ㉢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여기도 중생과 의롭다하심과 성화와 견인과 영광 등의 일반적 및 특수한 은혜가 제공되는 것이 포함되었다(딤후3:5, 6; 렘31:33; 32:40; 사35:10; 53:10, 11).<sup>62)</sup>

셋째로 이 언약의 조건은 (1) 그가 여자에게서 나며 율법 아래 나시는 것이었다(갈4:4, 5). (2) 중보께서 그의 선택된 백성을 대표해서, 행위의 언약에서 지키지 않은 조건과 받게 된 벌을 전부 떠맡아서 실행하는 것이었다(마5:17, 18). 즉 ㉠ 에 언약에 있는 약속의 조건이었던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과(시40:8; 사42:21; 요8:29; 9:4, 5; 마19:17), ㉡ 옛 언약을 어겨서 받게 된 벌, 즉 사망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다(사53; 고후5:21; 갈3:13; 엡5:2).<sup>63)</sup>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언약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셨다. 그리하여

---

62) A. A. Hodge., op. cit., p. 169.

63) Ibid.

은혜 언약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루셨다. 이 약속된 것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의 기초에는 성부와 성자 간의 영원한 의논(consilium)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consilium)과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모든 사역과 그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확실한 것이다.

## C.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성경의 증거

### 1. 견인 교리를 직접적으로 증거 하는 성경 구절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성경의 증명은 너무도 풍부하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모두 다 다루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그 구절들이 어떻게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1) 성부의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관련된 구절

##### 로마서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하나님은 역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한다. “부르심”이란 여기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가리킨다.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의미한다. 즉 단지 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지금 바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참 신앙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자기의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두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다”이다.<sup>64)</sup> 구원을 잃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불변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성자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관련된 구절

### 누가복음 22:31-32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하여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또 격렬하게 충돌질 할 수 있도록 성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한다. 사단의 목적은 제자들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빼앗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

64) Anthony A. Hoekema, op. cit., pp. 394-395.

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이란 표현 가운데 “떨어지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에크레이포(ekleipo)에서 유래한 에크리페(eklipe)인데 “끝에 이르다” 또는 “없어지다” 등의 개념을 지닌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흔적도 없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확실히 불충분한 의미에 있어서 믿음 없이 되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구원적 신앙은 잃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 깊이 빠졌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의 신앙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한 신자의 경우를 보게 된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7:25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sup>65)</sup> 이처럼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신다(롬8:34). 그리고 성부는 항상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요11:42).<sup>66)</sup>

### 로마서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잇을 수 없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참 신자의 가장 중요한 안전을 언급한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

65) Anthony A. Hoekema, op. cit., pp. 389-390.

66) Lorraine Boettner, op. cit., p. 230.

정으로 표현했고 또 표현하고 자 한다면 사도는 우리에게 당신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확신시킬 것이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라는 말은 특수한 의미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을 중단시키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나 않을까 염려한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불확실하다. 즉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 수 있는가? 매혹적인 유혹이 우리의 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않을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재난이 우리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거나 않을까? 바울의 대답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늘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안에 영원히 있다.<sup>67)</sup>”

### 히브리서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eis to panteles)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여기의 성도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참 신자이어야 한다. 헬라어 에이스 토 판테레스(eis to panteles)는 “완전히” 또는 “영원히, 항상”(forever, for all time)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재산을 파는 사람에게 보고한 apo tou nyn eis to panteles(지금부터 영원토록) 3세기

67) Anthony A. Hoekema, op. cit., pp. 395-396.

사본에서 조명을 받는다. 만약 우리가 이 두 번째 의미를 채용한다면 이 구절은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중보하기 위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또는 영원히 참 신자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해져야 한다. 또 만약 우리가 첫째 의미를 선택한다면 이 구절은 그리스도 그의 백성을 온전히, 전적으로 또는 “최대한도로” 구원하실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아니했다. 요점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사용된 엔틴카노(entynchano)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탄원(변호)한다”는 뜻이다. 이 탄원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역의 한 단면이다. 지상에 계실 동안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지금 이 속죄의 공로에 근거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계속(항상) 중재하신다(롬8:34). 그리스도의 중보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게 성부께 탄원하신다(요일2:1). 역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이 계속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신다(요일17:17). 성부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성취한 사역은 성부께 열납되었다(벰전2:5).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마침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요일17:24). 지금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은 완전히 충분한 속죄를 근거로 해서 계속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대답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이다.<sup>68)</sup>

68) Anthony A. Hoekema, op. cit., pp. 400-401.

### (3)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에 관련된 구절

#### 에베소서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와 함께(또는 그 안에서 : 헬라이어 엔호 en ho)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즉 성도의 부끄러운 행위는 성령께 상처를 준다. 아마도 바울은 앞 절에서 언급한 불건전한 말과 같은 그런 종류를 부분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아마도 불건전한, 이기적인, 또는 은혜를 모르는 마음은 물론이고 또 사랑이 없거나 정직하지 못한 행위들을 포함시키려는 의향을 가진 것 같다. 그가 언급한 이런 모든 행동은 성전과 같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든다.<sup>69)</sup>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또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이 모든 죄악들은 더욱 더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인치심은 보증을 나타낸다. 신약 시대의 목자들은 가끔 자기의 양떼들을 다른 사람의 양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자기의 양에게 표시를 하였다. 이것을 신자들에게 적용시킬 때 인(印)은 자기 소유권의 표시임을 시사한다.

고린도후서1:22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 치셨다는 사상은 미래의 보증과 담보로써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사상과 일치한다. 에베소서

---

69)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이시기 때문에(롬 8:26; 갈 5:17)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그를 근심케 만드는 것이 된다.”(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9(고린도후서-디모데후서)」(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pp. 358-359.)



1:13-14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인 치셨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에서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 즉 장래 우리 구속의 때까지 “기업에 보증”(아라본 arrabon)이 되었다는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

그러므로 에베소서4:30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 치심을 받았다는 진술을 통하여 비록 참 신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 한다. 비록 인 쳐주신 성령이 그들 속에 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생의 회개와 개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신약 교훈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인을 깨뜨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sup>70)</sup>

#### (4) 은혜 언약의 본질과 관계된 구절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의논(consilium)에서 결정되고 합의된 은혜 언약의 내용은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모두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하심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러므로 택자는 그를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증거되고 있다.

70) Anthony A. Hoekema, op. cit., pp. 397-398.

## 요한복음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정죄를 당치 않게 될 것이며,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교훈하신다. “옮겼느니라”고 번역된 동사는 원형 메타바이노(metabaino)의 변화형인 메타베베켄(metabebeken)인데 “지나가다 또는 넘어가다”라는 뜻이다. 이 동사는 이미 완성된 과거의 동작을 나타내는 완료시제이다. 이런 동작이 묘사하는 바는 결정적이며, 이미 지나간 뒤에 있는 그의 다리(bridges)를 태워버린 사람의 경우와 같이 취소 불가능하다. 참 신자가 생명에서 다시 사망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sup>71)</sup>

## 요한복음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의 백성들에 관해서 언급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구세주인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가르치신다. “영생”은 어떤 사람이 한 때는 소유할 수 있고 다음에는 잃을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영

---

71) Anthony A. Hoekema, op. cit., p. 391.

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히브리서5:9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한다. 여기 “영원한 구원”이 어떤 경우에 단지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신앙으로 자기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요6:37). 3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방편으로 이들을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sup>72)</sup> 자기가 한 말의 의미가 곡해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겠다”고 확정하신다. 예수님이 추가하신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6:40).

누가 보다 강한 보증자를 찾을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참 신앙 안에서 나에게 오는 이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공언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고 내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는 그 날에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런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방편을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한 구원으로 그들을 보존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다.<sup>73)</sup>

## 요한복음10:27-28

---

72) “주님은 아버지의 목적하시는 바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확보되어 있는 구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자는 버려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실족되어 많은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언제나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모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3(요한복음 I)」(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pp. 228-229)

73) Anthony A. Hoekema, op. cit., p. 392.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들을 내 양이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결코 끝이 없는 영생을 주신다.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여기서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쓰여진 헬라어 “오우 메”(ou me)는 가장 강한 방법으로 부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문자적으로 본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어떤 가능한 방법으로도 결단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신자들의 안전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드는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데 있다. 알미니안 해석자들은 비록 외부의 힘이 예수님의 손에서 신자를 빼앗을 수 없지만 신자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기의 손을 놓을 수가 있으며 결국 길을 잃게 된다고 말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피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해석에 반대하여 확실히 예수님이 언급한 “아무도 없다”에는 신자 자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손은 때때로 매우 약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손은 강하고 깨어질 수 없다. 더구나 나의 양 가운데 어떤 양은 참으로 멸망당할지도 모르며, 어떤 양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29절에서 계속 말씀하신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양을 계속 붙들어 주시며, 또 나의 양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신다.<sup>74)</sup> 때문에 신자는

74)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성이 하나님의 전능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그것의 확실성이 하나

두 배로 안전하다. 허약하고 연약한 성도의 손을 꼭 쥐시는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은 신자들을 두 손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모든 성도들을 붙드신다.<sup>75)</sup>

### 고린도전서1:8-9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많은 결점이 있고 그들이 육신에 속하여 범죄하고 있지만(고전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강하게(견고하게 또는 확고부동하게)하시고-사실 그들이 심판의 날에 흠 없게 되는 그러한 방편으로 그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킨다. 환언하여 신앙 안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안전은 결국 그들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에 달려있다.<sup>76)</sup>

### 빌립보서1:4-6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

님의 전능한 그것과 상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강하시니 그의 보화를 빼앗을 자는 사람들 중에도 없고 마귀들 중에도 없다. 하나님의 수중에서 한 사람의 성도를 빼앗는 일은 하늘에서 별 하나를 따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성도의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의개해 있어서 그들은 멸망의 위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놓여있다.”(Loraine Boettner, op. cit., p. 229)

75) Anthony A. Hoekema, op. cit., pp. 393-394.

76) Anthony A. Hoekema, op. cit., p. 396.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착한 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은 그들을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그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한다.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이것보다 더 포괄적이다. 즉 착한 일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 그들의 참 신앙,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포함되어야 한다(참고, 빌1:1, 25-26, 29). 지금 바울은 그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표현한다. 부활의 날 지정된 그 날에 그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인내에 관한 바울의 확신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향한 그들의 지속적인 충성에 의존해 있는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존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도움에 의존해서 일을 수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가끔 자기가 시작한 일을 미완성인 채 남겨 두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바울의 말은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즉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구속의 선한 사역을 시작하셨다. 바울의 확신은 역시 우리의 확신이다.<sup>77)</sup>

#### **디모데후서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소조(sozo)는 죄로부터의 구원 또는 물리적인 위

---

77) Ibid., pp. 398-399.

험에서 구출한다고 하는 두 가지 “구원”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이 말은 “안전하게 지키신다” 또는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 기원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 천상적이다. 바울은 다시 하늘나라의 최종 영광스러운 출현 때까지 성도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신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확신을 표현한다.<sup>78)</sup>

### 베드로전서1:3-5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도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산 소망, 결코 썩지 않는 소망, “영혼의 닻”과 같은 소망(히6:19)을 위하여 중생하게 되었다. 역시 우리는 결코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업과 비교되는 영광스런 미래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중생) 되었다. 사실 이 기업은 우리를 위하여 뜻밖에도 난당할 수 있는 여관의 보관소와 같지 않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신약시대의 신자의 기업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한 성취이다. 즉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의미한다(히11:10). 바

78) Anthony A. Hoekema, op. cit., p. 399.

꾸어 말하여 우리의 미래 기업은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동을 누리며 사는 영생을 의미한다. 그 때에 새 땅은 새 하늘과 함께 합병될 것이다(계21:2).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자세하게 말한다. 신자들은 두 배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 기업은 신자들에게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역시 신자들은 이 기업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하여 계속 보호를 받는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드러나기로 예비 된 우리의 최종적인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지킨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정했을 때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 본성의 연약성에 대하여 뼈저리게 체험한 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 있는 단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숙어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우리가 신앙에 의해서 이 안전을 계속 붙들도록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찍이 우리는 신자의 영적인 안전은 신앙 안에서 계속 인내해야 함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베드로는 이 점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표현되는 살아있는(갈 5:6)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의 실천이 없이 하나님의 견인의 위안에만 단순히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참 신자의 견인 교리를 뒤집지는 못한다. 우리가 살펴본 기업은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쇠하지 아니할 것이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성실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것의 시작과 지속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



리에게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결국 우리의 견인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존된다.<sup>79)</sup>

## 2. 성도의 견인 교리와 위배되어 보이는 성경 구절

성경 중에는 신자도 타락하여 세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이 보이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떠나서 다만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역량만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성경 구절이 가르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진하여 하나님과 협력하게 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항구적인 겹혀, 각성, 권면의 유치이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험한 곳에 결코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식의 진정한 노력을 얻기 위하여 자동차 도로에 들어가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타락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의 타락을 허락하시려고 의도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한 공포는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자들을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일수도 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경고의 구절에 관하여 고려할 점은 하나님 어떠한 행동의 의무를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는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의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성경 한 구절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명하시고 다른 한 구절에서는 “내가 내 신을 너

---

79) Anathony A. Hoekema, op. cit., pp. 401-403.

희 안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도를 행하게 하시리라”고 허락하시었다. 성령이 자기모순을 행하지 않는 한 이것은 양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셋째로 그러한 경고는 신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신앙과 기도에 격려가 된다. 넷째로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알고, 그의 의무를 알고, 그의 힘을 알고, 그리고 그의 약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로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성결과 하나님 의존의 격려를 확신케 한다. 여섯째로 그것은 불신앙 자를 구속(拘束)하고 또한 그들도 변명할 여지가 없게 한다.<sup>80)</sup> 여기서는 이러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모두를 해석하기 보다는 그것들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거기에 대한 개혁주의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믿음을 지속하라는 권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성구들은 다음과 같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요8:31);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यो”(요15:5);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전16:13);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3:11)

이들 짧은 성구들과 이것과 비슷한 다른 성구들은 견인 교리를 간과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사도들은 견인교리에 대한 오해

80) Loraine Boettner, op. cit., pp. 226-227.

를 반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들은 견인교리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의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한다. 즉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야 하며, 우리가 견인의 복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들은 역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킨다. 이 성구들 속에는 훈계, 경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파선당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데 어떤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태풍에 의해서 파선되는 것처럼 보일 때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고 말하였다. 얼마 후 그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선객들은 구명정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행27:31)고 말했다. 구원의 확실성은 필요 불가결한 방편 따위에 의해서 제외되지 않는다.<sup>81)</sup>

## (2) 배교(Apostasy)에 대한 경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구들 가운데 경고가 내포되어 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81) Anthony A. Hoekema, op. cit., pp. 405-406.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골1:21-23);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히2:1);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3:17).

이 성구들 가운데에 있는 명령들은 역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 지키신다. 그리고 이들 방편들은 배교에 대한 경고가 포함된다. 이런 짧은 경고에 주의함으로써 신자들은 인내한다.

인용된 성구들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한다. 참 신자는 믿음 안에 거함으로(골1:23), 그가 들은 것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음으로(히2:1), 그리고 실수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획득한 위치에서 거룩하게 생활함으로(벧후3:17) 그가 가진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 성구들은 다시 견인에 있어서 신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사실 베드로후서 3:18은 단호한 용어으로써 동일한 경고를 표현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sup>82)</sup>

### (3) 실제적인 배교의 경우들

실제적인 배교를 언급한 어떤 성구들은 개인들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시험이나 유혹이 왔을 때 타락하는 청중들을 묘사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이런 청중들의 신앙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셨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

82) Ibid., pp. 406-407.

반하는 자요”(눅8:13). 그런고로 참 신자는 끝까지 견디는데 반해서 청중들은 단지 “잠시 동안”(pros kairon, for a while) 믿는다.

요한도 비슷한 상황을 묘사한다. “저희가(앞 절에서 적그리스도로 묘사됨)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요일2:19).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사람들의 이탈은 실제로 처음부터 참 신자의 계열에 속하지 아니했음을 드러낸다. 그들의 신앙은 분명하게 진실 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에 소속된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거짓 신자들이 항상 있었고 지금도 존재함을 가르친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모두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롬 9:6). 신약시대에 교회 안에서 적어도 외면상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밀 가운데 죽정이가 있고(마3:12),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요15:2). 역시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며(딤후3:5),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이 있으며(계2:2),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있다(계3:1). 무제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항상 알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만약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배교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가정해야 한다. 첫째,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찾으실 것이다. 둘째, 그 배교자들의 신앙은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기 때문이다.<sup>83)</sup>

---

83) Anthony A. Hoekema, op. cit., pp. 408-409.

신약성경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기록된 한 구절이 있다. 갈라디아서5:4에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참 신자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교리적 잘못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 구절에 관한 존 머레이(John Murray)의 주석은 참고할 만 하다.

“바울은 여기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타락하고 마침내 멸망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칭의에 반대하여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순수한 교리에서의 위반을 다루고 있다. 바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가 어느 정도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추구한다면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칭의로부터 떨어져 버림받고 타락한 자들이 된다.”<sup>84)</sup>

요한복음17:12에는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제자들)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성구는 가끔 견인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인용된다. 즉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전되고 지켜지는 성도들마저 멸망할 수 있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여기서 영원히 버림받을 운명에 놓인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전과 지킴의 목적은 자기의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반복해

84) John Murray, *Redemption*, (Grand Rapids : Eerdmans, 1955), p. 194.(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p. 409에서 재인용)

서 그가 지키는 사람들은 멸망하거나 버림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6:39과 10:28에서 이 점을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요17:2), 그리고 역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17:24)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가롯 유다를 지키셨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전체 본문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었으나 유다가 멸망하였다.”<sup>85)</sup>

그러나 유다의 멸망은 예수님에게 놀라움이 되지 못한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복음서 기록자는 덧붙여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요6:64)고 기록했다. 이 구절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유다의 멸망은 “성경을 옹하게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유다의 불신앙과 그 다음의 멸망은 성경에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었음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보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유다의 불신앙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하셨다.

그러므로 “오직…뿐이오니(except)라는 말씀(요17:12)은 제외를 묘사하며,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보전하시고 지키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보전하는 성도들은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유다는 성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키시는 성도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유다는 참되고 살아있는

85) Anthony A. Hoekema, op. cit., pp. 410-411.

신앙을 가졌다고 가르치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sup>86)</sup>

아마도 이런 주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곤란한 구절은 히브리서 6:4-6일 것이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구절의 실제적인 난관은 우선 이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4-5절에서 사용한 다양한 문구들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참 신자도 멸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참 신앙의 열매를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주장은 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

F. F. 브루스(Bruce)는 2세기 당시에 가끔 세례는 “조명”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한번 비침을 얻고”라는 말은 세례에 관한 언급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우리가 이런 해석을 수용하지 않을지라도 이 구절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명백하게 복음서에 의해서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곤란을 느끼지 않는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브루스는 이 구절을 주님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가능한 해석이다. 역시 이 단어들은 기독교를 존속시키기 위한 영적 축복에 관한 언급일 것이다.<sup>87)</sup> 이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교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들을 맛보았다.

---

86) Anthony A. Hoekema, op. cit., pp. 411-412.

87)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Hebrew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64), p. 120.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p. 414.에서 재인용)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이 단어들에 대한 단서는 10:29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받은 여적인 축복을 모독하며 또 가볍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한 기록을 본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성령과 어떤 접촉을 가졌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라는 구절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88)</sup> 우리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12:31-32에 묘사된 성령을 훼방하는 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맛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 말씀의 선함을 맛보았으나 말씀을 온전히 수납하지 않았다.<sup>89)</sup>

“내세의(또는 오는 시대, age to come) 능력을 맛보고.” 여기서 우리는 “오는 시대”에 이미 존재했음을 지시하는 어떤 기적적인 징조(miraculous signs)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3:3-4에서 우리는 주님께 가서 직접 들은 사라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증되었음을 본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 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능력”(dynamis, 두나미스)으로 번역된 단어는 6:5에서 “능력”(power)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다. 6장에 묘사된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들과 능력들을 맛보았다. 그들은 당시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목격하였지만 타락하였다. 우

88) 토마스 왓슨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다.”(Thomas Watson, Op. cit., p.499)

89)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 여기서 맛보는 것은 먹는 것과는 반대된다. 외식자는 일종의 종교의 달콤한 맛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의 맛은 자라는 것이 아니다. 양치질 약과 강장제를 마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양치질 약은 단지 그의 입 안을 씻어줄 뿐이다. 그는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다시 밖으로 뱉어낸다. 그러나 강장제는 마셔서 삼키고, 그리하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살찌게 한다. 사람이 양치질 약을 맛보는 것처럼, 단지 어떤 종교의 맛이나 기미를 간직하고 있는 외식자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Thomas Watson, Ibid.)

리는 기적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7:22-23).

또 다른 중요한 어려움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에 대한 의미에 관한 것이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의 헬라이어 원문은 파린 아나카이니제인 에이스 메타노이안(palin anakainizein eis metanoian)이다. 이 구절을 먼저 보면 여기 이 사람들은 한 때 회개했지만 지금은 참 회개를 상실했으며 다시 새롭게 될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만약 이런 해석이 정당하다면 참으로 참 성도의 견인교리는 반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참 회개는 생명 얻는 것(행11:8), 죄의 용서를 위함(막1:4),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고후7:10)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신약의 우세한 증거에 동의함으로 다시(again)라는 단어는 이 백성들이 한 번 보여준 회개(repentance)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 이런 회개는 눅8:13에 묘사된 일시적인 신앙과 비교될 수 있는 단지 회개의 외적인 고백임에 틀림없다.<sup>90)</sup>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구절들은 외식자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구절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반대로 참된 신자는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온전한 신자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9절로 보아 분명하다. “우리가 이 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

90) Anthony A. Hoekema, op. cit., pp. 414-415.

## IV. 결 론

지금까지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신조나 신앙고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는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고백 없이는 올바른 교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혁 교회가 고수해야 할 명확한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또한 도르트 신조를 통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살펴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신앙고백이나 신조가 단지 개혁교회의 과거의 유산으로서만 남아 있다면 그 신앙고백과 신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신앙고백과 신조가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고 그 신앙고백과 신조가 자신의 삶에 실천됨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야 신앙고백과 신조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특히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확증하시고 보존하셔서 비참한 타락에서조차도 선택의 불변의 의지에 따라 성령을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거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영접의 은혜와 칭의의 신분으로부터 타락할 만큼 혹은 죽음의 죄에 이르거나 성령을 훼방하는 죄에 이를 만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견인과 보존이 갖는 뿌리와 특성들이 성도의 견인으로 고백되도록 하셨

던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결코 다함과 변함이 없는 그의 풍성한 은혜를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불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영화되기 까지 끝까지 나를 붙들고 타락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 교리는 세상의 그 어떤 선물과 위로에 비길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선물과 위로가 될 것이다.

현재 세상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공로와 자유의지의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신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세상의 흐름을 좇아 자신도 모르게 알미니안주의의 인간 중심적인 신학에 빠져들고 있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성도의 견인 교리는 신자를 나태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쉽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교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신이 신자들에게서 교만을 부추기거나 속된 안정감을 갖도록 부추기기는 커녕, 오히려 그런 확신이야말로 겸손과 경외, 참된 경건, 모든 환난에서의 인내, 열정적인 기도, 진리에 대한 변함없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견고한 자세의 진정한 근원이 된다. 오히려 요즘 나타나고 있는 인간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는 교회의 풍토가 교회 안에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통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열심을 낳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이 교리가 명확히 설교되어지지 않고 또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당에 사람을 많이 채우는 것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올바르게 전하는데 있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어떤 열심도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 또한 구원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 오직 우리의 견인은 오직 성부 하나님 선택과 작정의 불변함에서, 성자 하나님의 공로와 증보의 효력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언약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성도의 견인을 믿는 자는 그의 출발점도 종착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송하며, 동시에 영적인 생명과 영생이 일치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귀중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성도의 견인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고백하게 된다. 성도의 보존은 역사적인 진리도 아니요, 과거 어디에선가 일어난 사실도 아니다. 그것은 덧셈표나 곱셈표를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과학적인 진리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진리요, 하나님이 시대시대 마다, 세대세대 마다, 자신을 매어 놓으시는 진리요, 우리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현실이요, 하나님 그의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생겨나게 하시고 또한 유지하시는 진리인 것이다.<sup>91)</sup> 자신이 성도의 견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며 또한 그 현실성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자들은 오로지 이런 의미로밖에는 그 교리를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속에 심겨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듯이, 성도의 보존을 그렇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고백을 기회로 삼아 육체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내와 근신과 신실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바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마5:12; 6:4; 롬2:7; 계22:12).

---

91) Herman Bavinck., op. cit., p. 633.

## <참고문헌>

### 1. 국내 단행본

- 김광채, 「근세 · 현대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김성봉, 「성령과 교회」 서울: 하나, 1996.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1998.  
\_\_\_\_\_, 「조직신학 편람Ⅲ(구원론)」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3.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박건택, 「개신교 역사와 신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8.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1998.  
최병섭,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광주: 도서출판 신성, 1997.

### 2. 번역본

- Bavinck, Herman.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Berkhof, Louise. 「조직신학(下)」, 권수경 · 이상원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Boettner, Loraine. 「칼빈주의 예정론」, 홍의표 번역, 서울: 백합출판사, 1972.  
Calvin, John. 「기독교강요(中)」, 김종흠 · 신복윤 · 이종성 ·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Hodge, A. 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김종흠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Schaff, Philip. 「신조학」, 박일민 번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Steele, David N. & Thomas, Curtis C.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 이상화 역. 서울: 엠마오, 1996.  
\_\_\_\_\_. 「칼빈주의 5대 강령」,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Turretin, Francis, 「개혁주의 속죄론」, 이태복 옮김, 서울: 개혁된 신앙사, 2002.  
Watson, Thomas, 「신학의 체계」, 이훈영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Williamson, G. 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옮김, 서울: 개혁주의  
의신행협회, 1985.

### 3. 논문

김재선, “칼빈의 구원과 관계된 가까운 원인들과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에 대하여”, 석사학위(Th. M)청구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노인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적 전통성 연구”, 석사학위논문(Th. 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4. 주석

강병도, 「호크마 주석(요한일서-요한계시록)」 서울: 기독지혜사, 1993.  
Cavin, John, 「칼빈성경주석3(요한복음 I)」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_\_\_\_\_, 「칼빈성경주석9(고린도후서-디모데후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 5. 외국 문헌

Donner, J. H. en van Den Hoorn, S. A., *Acta of Handelingen der  
Nationale Synode te Dordrecht(ten jare 1618 en 1619)*,  
Te Leiden Bij D. Donner. 1669.